

# 버럭 08월호

## Contents

강북구 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설명회 '열린세상'	2
자립생활기술교육 '배워보아요'- 미술심리교육	4
자립생활기술실천 5차 영화관람 (미션 임파서블-풀아웃)	6
7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공예체험 클레이아트'	8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10
<자립생활주택> 여가문화체험 용산'드래곤 힐 스파' 방문	13
영화"형"관람 후	15
이달의 정보	17
이달의 시	19
강북센터 CMS자동이체 신청서/CMS납부 목록	20
광고	21



# 강북구 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설명회

박지훈



이번 설명회는 2018년 5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을 알리고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과 과정,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증진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재정적·환경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도적 절차와 지역사회에서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하여 정책적 대안이 될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치법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과보고 드리자면 17년, 장애인 학부모, 의사,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강북구 발달장애인 조례 제정 TF팀을 구성하여 8월 29일 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외 17개 자치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들을 비교 검토하여 강북구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가안을 완성하였고 9월 6일 2차 회의를 거쳐 10월 25일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11월 9일 3차 회의를 통해 TF팀 2차 회의 때 만들어진 강북구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제정 가안을 다시 한 번 검토 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8년 1월 18일 4차 회의에서 최종 수정안을 만들어 18년 3월 16일, 이곳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강북장애인자립생활 직원, 조례 TF팀, 함께가는강북장애인 부모회, 강북구 의원분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반영하여 조례가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한 결과 4월 26일 강북구의회에

서 임시회가 개최되어 김도연 의원님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은 김도연, 구본승, 박문수, 유인애, 이용균, 강선경 의원 이었으며 이날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들은 임시회를 방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5월 25일,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아주 기초적인 제도적 지원의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작은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에 의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화합하여 지낼 수 있게 한 조례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자치법이 선언적 명시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발달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번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도 자기 주체성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누리며, 질 높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도모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 자립생활기술교육 ‘배워보아요’ 2차 미술심리교육 진행

김지연



8월 9일(목), 8월 16일(목)에 강북센터에서 자립생활기술교육의 일환으로 미술심리교육 ‘배워보아요’를 진행하였다. 1차 교육은 지체/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슷한 장애 유형의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강북센터 미술심리교육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미술 매체를 통해 표현하고 개인의 무의식적인 면을 이해하여 자기 통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미술심리교육의 주제는 1,2차 동일하게 ‘이름으로 말하는 나!’와 풍경구성법을 통한 심리 파악하기로 진행되었다. 1교시인 ‘이름으로 말하는 나!’ 시간에는 자신의 이름을 현재의 감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자신을 남에게 소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어색해했지만 잠깐의 수다를 통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고, 편안한 공간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며 소통하는 모습이 서로에게 한발자국 다가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2교시는 풍경구성법을 통하여 심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 산, 발, 길, 집, 나무, 꽃, 동물, 돌 등의 10가지 자연물 순서대로 그리며 의식의 흐름을 파악하고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감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여 자아성찰 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10가지의 자연물을 색연필을 사용하여 다채롭게 그려나갔고 스케치북에는 각자의 개성이 넘치는 알록달록한 풍경으로 가득 차있었다.



그림을 다 그린 후에 10가지 자연물에 대한 설명 및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1차(지체/뇌병변장애인), 2차(발달장애인)의 수업 방식에 차이점이 있었다. 1차의 경우 참여자들이 자신의 그림과 그 그림이 뜻하는 바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비중을 두어 집단상담을 진행한 반면 2차 교육에서는 그림그리기와 색종이 접기를 접목시켜 참여자들의 흐트러진 집중력을 바로잡고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1,2차 참여자 모두 자신의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심리상태에 대하여 매우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고 좀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고싶다는 참여자도 여럿 있었다.

참여자들의 장애유형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미술심리교육을 통하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고 참여자들 또한 즐거운 방식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미술심리교육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하면서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외의 사소한 얘기를 나누며 즐겁게 수업을 끝마칠 수 있었다.



## 5차 자립생활기술실천 영화관람 <미션임파서블 폴아웃>

정진경



7월 31일(화)12:50~16:10 5차 자립생활기술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션임파서블 폴아웃 영화를 관람하였다. 7월의 마지막 날 더위가 기승을 부려 약속장소에 모인 참여자들의 얼굴은 땀에 흥뻑 젖어 있었다. 더위를 식힐 겸 수유역 롯데 시네마 10층에서 잠시 담소를 나눈 후 출석체크를 진행하였다.

이번 자립생활기술실천 영화관람 참여자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신청해주신 신규 참여자가 많으시어 함께 인사를 나누고 이름과 얼굴을 익히는 시간을 가진 후 새로운 미션임파서블의 시리즈를 기대하며 영화관으로 입장하여 자리를 잡고 앉았다.

영화는 시작부터 액션신이 시원하게 펼쳐져 참여자들의 눈과 귀를 집중하게 만들었다. 중간 중간 다소 과격한 신이 나올 때에는 보호자분들께서 참여자들의 눈을 살며시 가려주시는 센스도 발휘하시며 모두 함께 즐겁게 관람을 하였다.

또한 사전에 영화관람 자리를 예약할 때 참여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맨 뒷자리로 배정을 함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참여자분과 영화 중간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참여자들이 함께 관람을 하는 비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다.







영화관람 시간이 다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을 마치고 나온 참여자들과 보호자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하였다. 만족도 조사를 하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톰 크루즈의 변함없는 화려한 액션에 대해 멋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며 소감을 나누었다. 다만 영화는 너무 재미있었지만 너무 과한 액션신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참여자의 보호자는 따라할 수도 있어 걱정이 된다

고 하시어 추후 영화관람 프로그램 진행 시 장애유형에 따라 선정할 영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소감도 함께 밝혀 주셨다.

만족도 조사가 끝난 후 휠체어를 타고 오신 참여자 홍00씨와 보호자는 휠체어를 타고 좀처럼 영화를 관람 하러 오는 것이 힘들었는데 센터에서 세심하게 자리를 배정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고 하시며 센터의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주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모두 함께 단체사진을 찍은 후 사무실로 복귀하며 자그마한 배려로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배려의 큰 힘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 7차 발달장애인자조모임 ‘공예체험’ <클레이아트>

정진경



8월 22일(수)14:00~17:00까지 7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의 일환으로 공예체험인 클레이아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금번 프로그램은 6차 자조모임 진행 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공예체험을 희망하신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반영했으며 수많은 공예 프로그램 중에서도 클레이아트는 부드러운 촉감을 통해 감각을 기르고 손의 협응력과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하여 선택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당일 개인사유로 불참의사를 밝힌 한분을 제외하고 모든 참여자분들께서 약속시간까지 모두 강북센터 교육장(1707호)으로 방문하여 주셨다. 간단히 출석체크를 마친 후 정각 2시부터 담당자가 클레이로 색깔 배합과 기본모양 만드는 것을 시연하고 본격적으로 나무액자 틀을 예쁘게 꾸며 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참여자는 클레이를 처음 접해보아 색깔을 배합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차츰 익숙해진 듯 클레이로 액자를 꾸밀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신\*\*참여자는 담당자가 클레이로 만든 액자를 보며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센터의 자조모임에 처음 참여한 이\*\*참여자는 보호자와 함께 여러 동물모양을 만들어 자조모임에 참석한 이용자분들께 선물로 주고 관심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안\*\*참여자는 클레이의 촉감에 집중하여 손으로 눌러보기도 하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



하여 자르고 붙이며 즐거워하였다.



참여자들이 액자를 모두 꾸미고 난 후 센터에서 준비한 저녁식사로 피자가 배달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다함께 뒷정리를 하였다. 신\*\*참여자와 송\*\*참여자가 열정적으로 뒷정리를 도와 빨리 끝남에 따라 자리에 앉아 잠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송\*\*참여자는 이\*\*참여자에게 선물로 받은 동물모양 클레이에 대한 답례로 감사의 편지를 써서 전달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사이 피자가 도착해 맛있게 먹었다. 특히 안\*\*참여자는 날씬한 몸에 비해 엄청난 식성을 보여줘 모두를 놀라게 했다. 피자를 맛있게 먹은 후 각자 클레이로 꾸민 액자를 들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자신이 직접 꾸민 클레이 액자를 들고 뿌듯해하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7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담당자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발달장애인자조모임이 더 뜻 깊고 발전하는 방향이라 생각된다.

##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내 마음을 들어줘’ 를 진행하며.....

전난희



2018년 08월 23일에 진행하였던 하반기 집단동료상담의 주강사는 통일성 있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상반기 집단동료상담의 주강사이셨던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신 김창화 강사님께서 다시 한 번 맡아주셨고, 보조강사로는 조희숙 동료상담가께서 맡아주셨다.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진행은 상반기와 동일한 시각인 14:00 ~ 17:40까지 진행

하였으며, 15분의 휴식시간을 가져 참여자들이 시간의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었고, 17:40 ~ 18:00까지 만족도조사를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알 수 있었다.

김창화 강사님은 본격적인 상담을 들어가기에 앞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알 수 있는 영상을 보여주어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과 인권의식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김창화 강사님께서 일반적인 자기소개가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소개하게 하여 참여자들이 장애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었으며, 참여자들이 전주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하여 NEW & GOOD을 진행하였고, 자연스럽게 참여자들의 생활을 엿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조각모음을 통해 참여자들과 닭은 동물과 닭고 싶은 동물을 부직포 판에 붙이는 과정



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관점과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가는 상담을 하였고, 참여자들이 자기만의 고민거리나 나누고픈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감의 시간’을 가지며 내담자들이 서로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참여자들은 허물없이 자기만의 얘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였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조강사로 섭외 된 조희숙 동료상담가는 주강사님의 강의 속도에 맞추어 상담을 진행하였고, 인생그래프를 설명하고 진행하는 과정 중 시작부분이 조금은 매끄럽지 못하였지만,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참여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며, 적절한 코멘트를 해주어 참여자들이 마음의 위로와 서로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하반기 집단동료상담에 참여하였던 손00씨는 지인의 소개로 집단동료상담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으며, 공개된 자리에서 타인에게 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지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하고 나니 조금은 후련한 마음이 들어 좋았다고 하였으며, 다만, 건물 전력공사로 인해 에어컨을 틀수가 없어 아쉬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김00씨는 평소 중2 아들을 둔 엄마로써 육아에만 신경을 쓰고 나 자신에게는 무신경하였는데 집단동료상담에서 사춘기 아들에 대한 얘기와 인생그래프를 통한 지난날의 내 얘기를 하며 우울했던 기분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뜻 깊었다고 하였습니다.

이00씨는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항상 집안에서만 생활하여 사람들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는데 지인을 통해 집단동료상담에 참여해 보니 사람들과의 대화하기가 조금은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 얘기에 공감해주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고 하였으며, 우00씨께서는 조가모





##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음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부족함과 닳고 싶은 점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인생그래프를 통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봄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바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최00씨는 인생그래프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알게 되었고, 비슷한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나만이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는 마음에 위로와 왓지 모를 공통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18년도 하반기 집단동료상담의 참여자들은 비록 건물전체의 전력 문제로 인해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도와 호응도를 보여주어 강사진과 스텝들은 보람과 더불어 참여자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 < 자립생활주택 여가·문화체험 > 용산 ‘드래곤 힐 스파’ 방문

김다희

7월 31일 폭염이 심하던 무더운 여름 날 자립생활주택 문화·여가체험 프로그램으로 찜질방을 방문하였다. (가형) 주택의 정00씨와 신00씨의 만이 참여하였으며 평소 위생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이 필요한 입주자 분들을 대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었다.



다 같이 용산 역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기 위해 아이파크 물에 들어가 식당을 찾던 중 입주자 정00씨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인 트와이스 전신 판넬이 배치해 있었다. 입주자 정00씨는 판넬을 보자마자 ‘와, 이거 뭐야. 다시 와야지’ 라고 말을 하며 멤버들의 판넬 하나하나에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고, 행복한 웃음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00씨의 트와이스에 대한 팬심 어린 사랑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점식식사를 위해 이동을 하였지만, 방학으로 인하여 몰려든 학생들과 폭염 속에서 시원한 곳으로 몰려든 많은 인파들 속에서 우리들은 30분이 넘는 대기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그렇게 식사를 마쳤으며, 다 같이 찜질방으로 이동을 하였고 입주자분들은 찜질방 내에 있는 오락기와 푸트코트를 보고 신기하셨는지 ‘와’ 라는 감탄사를 계속 내뱉는 모습도 보이셨다.



대중탕 이용을 마친 후 입주자 정00씨는 본인의 자비로 농구 게임을 하고 싶다 말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돈을 지불하고 게임을 하는 거라서 인지는 몰라도 어느 때보다 게임을 즐겼으며, 신00씨와 간식내기도하며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입주자 신00씨는 신중하게 조심히 공을 골대에 넣으며 재미있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모습이 어찌나 해맑고 귀여우시던지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즐겁게 농구 게임을 마치고, 노래방에 도착하여 '누가 먼저 노래 부르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입주자 신00씨는 '내가 꽃을 든 남자랑, 학교종이 땡땡이랑, 산토끼야, 이거랑 다 잘 부른다고' 라며 말씀을 하시며 꽃을 든 남자를 예약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으며, 신이 난 신00씨는 노래를 찾기도 전에 무반주로 노래를 열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찜질방을 다시 오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에 입주자 정00씨는 '여기 똑같은데 다시 와요? 좋아요'라는 대답을 하였으며 입주자 신00씨는 '다시? 이렇게 다 같이 다시와? 다시 왔으면 좋겠어.....'라는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영화 “형” 관람 후

이선자



영화 “형”의 줄거리는 비장애인이인 유도국가대표 선수가 경기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지만, 곁에서 친형과 유도 코치의 조력으로 장애를 극복하여 2016년 리우올림픽에 나간다는 내용이다. 영화의 주인공인 두영이 경기도 중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해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나는 앞으로 유도선수 생활을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다.

영화에서 코치로 나오는 수현은 시각장애인이 된 두영이 집을 드나들며 밥과 청소 등을 해 주며 어떡해서든지 두영이 다시 유도를 하기를 바란다. 그 와중에 밥을 먹던 두영이 쓰러지게 되고 수현이 두영을 위해 응급실까지 가는 장면이 꼭 엄마처럼 진심으로 두영을 생각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교도소생활을 마치고 나온 형 두식은 두영을 찾아가 말은 너를 위해 나온거라 하였지만, 실상은 두영이 앞으로 나오는 보조금을 갈취하려는 생각밖에 없는 파렴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두영이와 생활을 하며 점차 교화 아닌 교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두영과 찰떡호흡을 맞추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은 두식이 두영의 옷을 사 주겠다는 명목으로 백화점에 간 장면이다. 앞이 안 보이는 두영이 백화점에 온 고객에 의해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고객의 잘못으로 인해 두영이 넘어졌음에도 사과는커녕, “눈도 안보이는 장애인이 이런데 왜 와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두영을 보고 열이 받은 두식이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다. 병원에서 형제가 합작하여 불량 고객을 골탕 먹이는 장면은 통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 사실상 자기 옷을 건거였지만, 막상 동생이 당하는 걸 보자 두식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나보다.

이처럼 TV드라마나 영화 또는 소설 등에서 장애인들은 마음이 배배꼬이고,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분도 두영처럼 후천적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좀 더 잘 챙겨줄 걸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보다 더 건강하셨는데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고 괜히 내가 미안해지기도 하였다.

“형”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나는 학창시절을 떠올리기도 했고, 장애인 영화제 등에서 장애인 친구들이나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보러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장애인들이 자기의 속 깊은 이야기 할 수 있는 모임 등을 만들어 고민을 나누고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활동들이 동료상담가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인턴쉽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무엇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12월에 인턴쉽을 마치게 되면 보치아 심판 자격증도 따고, 보치아 지도사 자격증 공부도 하며,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하는 보치아 자조모임을 알아보고 참여하여 보치아 실력을 좀 더 키워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었다. 만약 다시 주몽학교로 돌아가게 된다면 후배들에게 보치아를 더 자세하게 알려 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이달의 정보

### 발달장애인 위한 ‘폭염에 건강 지키는 법’ 배포



예비 사회적기업 소소한 소통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삽화와 글로 된 “이해하기 쉬운, 폭염에 건강 지키는 법”을 무료로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내용 속에는 시원한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시기, 한낮에는 가급적 바깥에 나가지 않기, 외부에 오래 둔 음식은 먹지 않기 등 사소하지만 꼭 지켜야 할 건강 정보가 삽화와 함께 설명돼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소한 소통 홈페이지([www.sosocomm.com](http://www.sosocomm.com))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 이해하기 쉬운, 폭염에 건강 지키는 법 내용. ©소소한 소통

소소한 소통 백정연 대표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알아야 하는 정보는 모두 쉬워져야 한다”며 “또한 쉬운 정보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는 인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803085610915967>

### 강서구, 청각장애인 전용 영상전화기 설치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지역 내 청각장애인의 행정이용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수어 전용 영상전화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구청 내 주요부서 및 각 주민센터에 수어 전용 영상전화기를 설치하는 ‘소리친구, 제 눈빛을 알아 맞춰주세요’ 사업을 추진한다.



##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이 사업은 기존에 4개 행정기관에만 설치된 영상전화기를 민원관련 부서에 확대 설치해 청각장애인의 민원업무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치대상은 강서구보건소 등 청각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11개 기관이며, 이번 달까지 신규 영상전화기 설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수어 전용 영상전화기는 청각장애인이 구청 및 주민센터 방문 시 민원처리를 돕는데 활용된다.

영상전화기로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센터에 근무하는 전담 통역사가 수어로 대화를 나누고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스피커폰을 이용해 전달한다.



특히, 구는 영상전화기가 청각장애인의 상담 등 민원업무 처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올해까지 주요 민원부서 및 20개동 주민센터 등 24개 시설에 모두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어 지원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기초 및 중급 과정으로 나눠 수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구청 직원 및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우장산동 등 3개 주민센터에서 ‘2018 찾아가는 수어교실’을 운영한다.

이는 업무 중에 만나는 청각장애인과 원활한 소통은 물론 청각 장애를 가진 주변 이웃과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이 힘들어 그 동안 행정업무를 보는 데 많은 불편을 겪으셨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강서수어통역센터를 대폭 확장해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 내 농아인 컴퓨터를 조성해 농아인들의 정보 교류를 위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강서구 장애인복지과(☎2600-6833)

자료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0609062744604>

# 희망은 아름답다

정호승

창은 별이 빛날 때만 창이다  
희망은 희망을 가질 때만 희망이다  
창은 길이 보이고 바람이 부는 때만 아름답다  
희망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때만 아름답다  
나그네여, 그래도 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창을 열고 별을 노래하는 슬픈 사람이 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희망을 낳지 않는데  
나그네여, 그날밤 총소리에 쫓기며 길을 잃고  
죽음의 산길 타던 나그네여  
바다가 있어야만 산은 아름답고  
별이 빛나야만 창은 아름답다  
희망은 외로움 속의 한 순례자  
창은 들의 꽃  
바람 부는 대로 피었다 사라지는 한 순례자





## 6차 자립생활기술실천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뮤지컬관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는 6차 자립생활기술실천'뮤지컬관람'프로그램은 문화공연 관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여가선용을 돕고, 소통과 교류의 장을 통해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아래와 같이 6차 자립생활기술실천 뮤지컬관람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접수 바랍니다.

사 업 명	6차 자립생활기술실천 '뮤지컬관람'
제 목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일 시	2018년 9월 12일(수) 13:00 ~ 18:00
장 소	샤롯데씨어터 (잠실역 3번 출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모 집 대 상	- 서울지역 거주 장애인 - 자립생활기술실천 프로그램 신규참여자(우선순위)
모 집 인 원	10명 (장애인 5명, 보조인 5명)
신 청 서 류	신청서, 복지카드사본(신규참여자)
참 가 비 용	무료
신 청 기 간	2018년 9월 07일(금) 오후 5시까지
신 청 방 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a href="http://kbcil.co.kr">http://kbcil.co.kr</a> 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a href="mailto:kbcil@daum.net">kbcil@daum.net</a> 또는 사무실(수유역 가든타워 1119호) 방문접수
기 타 문 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996-7776 ✉ <a href="mailto:kbcil@daum.net">kbcil@daum.net</a>

※ 위 일정은 센터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